

말씀으로 자라고, 공동체 안에 뿌리내리는 시간

새순 양육 과정 피양육자 모집

믿음은 혼자 애쓰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순교회 양육 과정은 말씀을 삶에 연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돕는 동행 중심의 신앙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양육 안내

- **기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환경에 맞추어 진행)
- **교재** 양육 교재 사용 (18주 과정)
- **장소** 양육리더와 피양육자의 상황에 맞게 조율
- **양육리더** 교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임명받은 양육리더들이 연령과 성별에 맞추어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싶은 분
-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은 분
- 혼자가 아닌 함께 자라는 믿음을 경험하고 싶은 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의 양육을 통해 단단히 자랍니다

✂ 위 선을 따라 절취해 주세요

시드니새순장로교회 양육과정 피양육자 신청서

이름: _____ 성별: 남 여
 생년월일: _____ 순: _____
 전화번호: _____

※ 작성 후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세요 ※
문의전화 팀장 김희우 (0433 112 164)

✎ 신앙의 첫 단추, 지금 다시 꿰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개역개정)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신앙의 방향이 흐릿해질 때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이 들 때 그때 드는 이 마음,

“아, 나에게 양육이 필요하구나.”

✎ 왜 ‘양육’이 필요할까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단단해야 오래 갑니다. 양육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점검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특히 이 바쁜 시대에,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 새순교회 양육은 다릅니다

양육이 필요한 분들,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훈련된 양육자들이 기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은 분, 처음 믿음의 길을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분 말씀 중심의 삶을 배우고 싶은 분

✎ 지금, 당신의 믿음을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작은 결단이 당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고,
삶 전체를 말씀 위에 올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새순교회 양육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신앙의 첫 단추를 ‘새순’에서 제대로 끼우십시오.